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 출사표(출마의 변)

안녕하세요 전무 후보 김정자입니다.

지난 4년간 협회전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4년 전의 제가 그저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신감과 패기에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무는 업적을 쌓거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회원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사방의 소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머리로 하는 소통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발로 뛰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4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 행정에 전달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충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 임원회의를 정례화 하려고 합니다.

각 임원의 명칭에 맞는 포지션과 업무 할당이 가능하도록 구조개혁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분과를 비롯하여 교육, 상벌 각 분과가 좀 더 유기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뿐만아니라 각종 규정과 내규에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메모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겠습니다.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1부 투어를 더욱 견실히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2,3부 시니어 투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직접 투어를 뛰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소리를 듣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03월 11일

작 성 자 : 김 정 자(인)

